

〈月先軒十六景歌〉에 나타난 ‘興’과 ‘月先軒’의 의미

주진니*

차 례

1. 서론
2. 完山 사건과 歸去來
3. 〈月先軒十六景歌〉에 나타난 ‘興’의 의미
 - 3.1. 詩興: 봄-자연과 인간의 생동
 - 3.2. 閑興: 여름-자연의 은혜와 인간의 한가로움
 - 3.3. 田家興味: 가을-자연의 결실과 인간의 풍요로움
 - 3.4. 安貧樂道: 겨울-‘歲寒三友’의 군자적 풍모
 - 3.5. 逸興: 처사적 삶의 자유로움
4. 달과 ‘月先軒’의 의미
5.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월선헌십육경가(月先軒十六景歌)>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완산(完山) 사건과 작품에 나타난 다섯 개 ‘흥(興)’의 양상 및 의미, 그리고 월선헌(月先軒) 당호의 의미 등을 고찰하였다.

첫째, 기존연구에서 <월선헌십육경가>의 서사부분에 벼슬살이의 번고를 의미하는 ‘환해풍랑(宦海風浪)’ 등 표현을 주목하여 이를 현실 세계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인식의 근거로 보았다. 그러나 신계영(辛啓榮)의 벼슬살이와 이에 관련 문학작품을 검토한 결과는 ‘환해풍랑’이 파직을 당했던 완산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완산사건은 개인적 차원에서만 겪은 큰 불행일 뿐, 신계영이 정치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해석할 근거가 되

*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기가 어렵다.

둘째, 작품에서 계절별로 나타난 ‘흥’의 의미를 살펴본 결과, ‘시흥(詩興)’은 자연과 인간의 생동으로 촉발된 흥취이고, ‘한흥(閑興)’은 자연의 은혜와 인간의 한가로움으로 즐기는 흥취이고, ‘전가흥미(田家興味)’는 자연의 결실과 인간의 풍요로 누리는 흥취이고, ‘안빈낙도(安貧樂道)’는 ‘세한삼우(歲寒三友)’로 일어나는 도학자의 흥취이다. 이 중에 사계 ‘흥’의 최고조에 이르는 것은 가을의 ‘전가흥미’이다. 이들은 백성의 풍요로운 삶에 기반을 두고, 사계의 순환에 따라 변화된 자연과 인간의 광경에 초점을 맞추는 흥취들이다. 이와 달리 ‘일흥(逸興)’은 화자 자신의 삶에 주안점을 두고, 본성을 따른 자유로움으로 느끼는 흥취로 보았다.

셋째, 작품 후반부에 달을 중심으로 전개한 내용을 주목하여, ‘월영만천(月映萬川)’에서 달이 유가적 ‘리(理)’를 상징하는 의미를 확보하고, 이를 작품에서 나타난 달에 적용하였다. 또한 ‘월선’이라는 당호도 유가의 ‘리’를 표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월선’의 의미는 성리학 적 이법이 제대로 구현되는 현실에 대한 갈망이라 할 수 있다.

핵심어 : 신계영(辛啓榮), <월선헌십육경가(月先軒十六景歌)>, 완산(完山) 사건, 흥(興), 월선헌(月先軒) 의미.

1. 서론

<월선헌십육경가(月先軒十六景歌)>는 1655년에 78세인 신계영(辛啓榮)이 벼슬살이를 그만두고 고향 충남 예산에 돌아온 후에 지은 가사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사시(四時)의 시간순서로 월선헌(月先軒) 주변을 둘러싼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람살이의 모습을 담아낸 시가이다.

신계영은 큰 기복 없이 평탄한 관직 생활을 한 인물이다. 그러나 작품의 서사부분을 보면 “환해풍랑(宦海風浪)”, “죄(罪)”, “명시부견(明時負譴)” 등 벼슬살이의 번고를 의미하는 표현이 나타난다. 기존연구에서는 이를 주목하여 현실 세계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인될 수 있는 근거로 봐왔다.¹⁾ 이리

1) 송종관, 「가사와 시조의 상보적 관계 연구-〈전원사시가〉와 <월선헌십육경가〉의 경우-」, 『어문학』 66, 한국어문학회, 1999, 281-283쪽; 김명준, 「<월선헌십육경가〉에 나타난 의식

한 표현들은 개인의 정치적 부침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과연 화자의 현실인식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재고할 여지가 남아 있다. 따라서 “환해풍랑”, “명시부건” 등 표현들이 무슨 사건을 가리키고 있었고 또 그 사건이 화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월선헌십육경가>에서 주목되는 것은 화자가 적극적으로 제시한 흥취, 즉 봄의 “시흥(詩興)”, 여름의 “한흥(閑興)”, 가을의 “전가흥미(田家興味)”, 겨울의 유가적 도를 즐기는 “흥(興)”과 치사한 후 월선헌에서 누리는 “일흥(逸興)”이다. 기존연구에서 이 흥취들은 어떠한 특정한 사물에 의해 유발된 감흥으로 보았으며,²⁾ 미적 수용의 측면에서는 시각적·청각적·미각적·후각적·촉각적인 이미지 정도가 거론되었다.³⁾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흥취를 일어나게 한 심층적인 요인이 무엇이며, 이를 토대로 계절별로 특별한 명칭을 부여하는 ‘흥’들의 성격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작품 후반부는 달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어 있으며, 당호 또한 ‘월선헌’이라는 점에서 ‘달’과 ‘월선헌’의 의미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기존연구에서 ‘월선헌’이라는 당호에 대해서는 “달이 먼저 돌아나는 난간”과 같은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였다.⁴⁾ 또한 작품에서 바람이 달을 가린 구름을 쓸어내는 현상을 연군지정과 관련시켜서, ‘달’은 임금이나 임금의 은혜로, ‘구름’은 왕의 충기를 흐리는 간신배로, ‘바람’은 충신 또는 화자의 소망으로 추정하였다.⁵⁾ 그러나 임금은 일반적으로 태양에 비유될 뿐, 달에 비유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달이 무엇을 표상하고 ‘월선헌’이라는 당호도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

지향],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0, 242-245쪽.

2) 김명준, 위의 논문, 245-254쪽; 남정희, 「<월선헌십육경가>의 강호 공간과 시적 형상화의 의미」, 『어문연구』3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170-178쪽; 허왕옥, 「일상적 경험의 형상화가 지니는 시가사적 의미-신계영의 <월선헌십육경가>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33, 한국시가학회, 2012, 112-117쪽.

3) 송종관, 위의 논문, 293쪽.

4) 송종관, 위의 논문, 283쪽; 달이 먼저 오는 곳(남정희, 앞의 논문, 180쪽); 달이 먼저 비추던 누정(김명준, 위의 논문, 254쪽).

5) 남정희, 앞의 논문, 183쪽.

는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 신계영의 ‘환해풍랑’이 시사하는 사건을 추정해보고, <월선헌십육경가>에 나타난 계절별 ‘홍’의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달과 ‘월선헌’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2. 完山 사건과 歸去來

신계영의 생애를 보면 총 세 번의 귀거래(歸去來)가 있었다.⁶⁾ 첫 번째는 계묘년(1603)에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계영이 벼슬을 하기 싫은 아버지를 따라서 예산으로 귀향한 것이다. 기미년(1619)에 문과 급제까지 첫 번째 귀거래는 17년이 지속되었다.

嗚呼世昏濁	아아, 세상이 혼탁하고
儒林混玉石	유생에는 옥과 돌이 섞였으니
色舉宜自潔	상황을 살피며 이렇게 스스로 깨끗이 하리라 ⁷⁾

時丁昏濁襟期潔	세상이 혼탁하여 고결함을 마음에 품고
秘跡丘園性命全	전원에 종적을 감추고 목숨을 보전하리 ⁸⁾

이 시기를 회상할 때 신계영은 ‘혼탁한 세상’, ‘유생에 옥석이 섞여 있음’ 등 표현으로 광해군조의 난정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자신의 귀거래가 명철보신(明哲保身)의 선택이라고 해명하였다. 이후 신계영의 벼슬길은 44세부터 본격

6) 신계영의 세 번 귀거래와 그의 생애에 대한 정리는 신계영의 연보와 이에 관련 작품을 참고로 하였다.

7) 원문은 辛啓榮, 『仙石遺稿』, <老病中不堪無聊略記平生事跡梗槩書與雄兒>, 278쪽, 번역문은 윤덕진, 『선석 신계영 연구』, 국학자료원, 2002, 371쪽을 참고하였다.

8) 원문은 辛啓榮, 위의 책, <追述舊事消遣無聊 其一>, 288쪽, 번역문은 윤덕진, 위의 책, 315쪽을 참고하였다.

적으로 시작되었다.

何幸癸亥春	어찌 다행인가 계해년 봄
咸池昇瑞日	함지에서 상서로운 해가 떠올라
大義遂重明	대의를 다시 밝아졌네” ⁹⁾

광해군조 말에 급제한 신계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인조반정을 겪었다. 그는 인조를 상서로운 해에 빗대어 인조반정을 유가적 도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계기로 보고 이를 맞이한 기쁨을 표출하였다. 뒤이어 이괄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전란을 겪었다. 1624년에 정립(鄭笠)의 종사관이 되어 일본에 건너가 임진왜란 때 잡혀간 조선인을 데리고 왔으며, 1637년에 속환사(贖還使)가 되어 청나라로 가서 병자호란 때 잡혀간 여인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이어 신계영은 1638년에 무릎의 종기 때문에 다시 귀거래를 한다.

헌부에서 아뢰기를, “근래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공정함이 사사로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대소 신료들은 다만 자기의 몸을 아낄 줄 알고 국가의 위급함을 염려하지 않으니, 험하나 순탄하나 두 마음을 먹지 않는 의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재상들이 청나라에 가는 것을 사지라고 지목하여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고 피합니다. 부빈객 신계영은 비록 무릎병이 있었으나 새로운 명에 숙배와 사을 드린 뒤에 곧바로 병을 핑계로 삼았고, 비국도 이에 따라서 들어주었습니다. 비국의 유사 당사를 추고하고, 신계영은 파직하소서.”¹⁰⁾

雖得免征邁	비록 멀리 떠나는 일은 면하였으나
痛缺夷險節	험난함과 순탄함을 가리지 않는 절개가 없는 것이 슬프네

9) 원문은 辛啓榮, 앞의 책, <老病中不堪無聊略記平生事跡梗槩書與雄兒>, 279쪽, 번역문은 윤덕진, 앞의 책, 372쪽을 참고하였다.

10) 『仁祖實錄』卷37, 仁祖 16년 (1638, 崇禎11년) 7월 26일 丁亥, “憲府啓曰 近來國綱解馳 公不勝私 大小臣僚 徒只愛惜 不念國事之危急 不貳夷險之意 掃地盡矣 今此之任 指爲死地 人皆厭避 副賓客辛啓榮 雖有脚膝 而肅謝新命之後 旋即稱疾 備局又從而聽之 請備局有司上推考 辛啓榮罷職”.

仍作病廢人 병으로 몸을 망친 사람이 되니
解職歸鄉曲 벼슬을 그만두고 시골로 돌아가리¹¹⁾

『인조실록(仁祖實錄)』을 보면 당시 대신들이 청나라에 가는 것을 사지(死地)라 여겨 모두 싫어하고 피하는 상황이었다. 이때 신계영이 무릎병을 이유로 청나라에 가는 부빈객(副賓客)의 자리를 고사하자 사헌부(司憲府)에서 국가의 위급함을 생각하지 않는 의리가 없는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서 신계영은 몸이 아픈 바람에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예산으로 돌아갔다.

1647년에 신계영은 안주전위사(安州餞慰使)로 다시 정계에 복귀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전주부윤(全州府尹),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 호조참판(戶曹參判), 오위도총부 부총판(五衛都總府 副總管) 등 관직을 지냈다.

세 번째 귀거래는 1655년에 이루어 졌으며, <월선헌십육경가>는 바로 이때 지어진 작품이다.

宦海 風浪이 猝然히 니러나니
峴嶸은 孤蹤이 罪는 어이 짓도던고
明時負譴하야 더딘 몸이 되야시니
遲遲은 行色이 眷戀하다 어이하리
西湖 舊業에 匹馬로 도라오니
寂寞은 荒村에 破屋數間 뿐이로다
어와 이 生涯 이리 하야 어이하리

서사에서 화자는 세 번째 귀거래가 환해에 갑자기 일어난 풍랑으로 초래된 것이라고 밝혔다. 죄를 입은 화자는 버린 몸이라고 하며 임금의 은혜를 갚지 못한 아쉬움을 품고 낙향의 길을 떠났다. 여기서 화자가 언급하던 ‘환해의 풍

11) 원문은 辛啓榮, 앞의 책, <老病中不堪無聊略記平生事跡梗槩書與雄兒>, 280쪽, 번역문은 윤덕진, 앞의 책, 375쪽을 참고하였다.

랑, ‘입은 죄’는 무엇일까? 다음 인용문을 통해서 이를 추정해보도록 하겠다.

幸於丁亥冬	다행이 정해년 겨울
少愈夙昔疾	오래된 병이 조금 나았고
聖朝無棄物	성조에 버려진 사물이 없으니
起廢收殘骨	다시 등용되어 쇠악한 기골을 수습하고
扶病入脩門	병든 몸을 지탱하여 성문에 들어갈 때
倘悅夢初覺	꿈에서 처음 깬 듯 당황하였네
完山歲再闕	완산에서의 세월을 다시 살펴보니
無奈治劇效	번거로운 일을 처리함에 효과가 없었고
黽勉六七載	예닐곱 해를 힘썼으나
愧蔑涓埃報	조그만 보답도 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데
年遲亦濡滯	늦어서도 머물러 있었으니
昨非今始悟	지난날 잘못을 지금에야 깨달았네
在朝將焉用	조정에 있은들 어디에 쓰여지랴?
未死可以歸	죽지 않았으니 돌아가도 되리라
進退無損益	나아가나 물러나나 손익이 없으니
有同乘雁飛	기러기와 함께 날아가리라 ¹²⁾

위의 인용문에서 신계영은 재 출사 8년간의 관직 생활을 회상하며 반성하였다. 화자는 재 출사 초기에 쇠악한 몸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은혜를 입어 재등용된 기쁨을 드러냈으나, 완산에서 번거로운 업무를 처리하는 무력함이 느껴져서 추후에 귀거래를 다짐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특별히 완산부윤으로 전주에 있었던 세월을 언급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1651년에 신계영이 전주부윤을 그만둔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完山爲邑最名疆	완산은 읍 중에서 제일 이름난 땅
南紀雄藩豐沛鄉	남쪽 지방의 가장 큰 번진이자 임금의 고향이네

12) 원문은 辛啓榮, 앞의 책, <老病中不堪無聊略記平生事跡梗槩書與雄兒>, 280-281쪽, 번역문은 윤덕진, 앞의 책, 375-376쪽을 참고하였다.

令尹衙門都護府	영윤(관찰사)의 관아가 있는 도호부로
湖關特地大道傍	호남의 관문이 특별히 큰길가에 있네
營軒檠戟連琴閣	영현의 의장이 금각까지 이어져 있고
原廟靑丹映粉牆	원묘의 단청이 흰 벽에 어리네
牒訴倥傯吾老矣	소장 읽기가 바쁠 정도로 내 늙었으니
射工之中亦何傷	사공이 들끓는 곳에 있은들 무슨 상관이랴 ¹³⁾

이 시 앞에 “기축년(1649) 봄 호조참의로서 완산(전주)부윤을 제수받았는데, 신묘년(1651) 봄에 전라도 관찰사 허적(許積)의 미움을 받아 파직되어 돌아오다”¹⁴⁾라는 기록이 있다. 화자는 시 전6구에서 임금의 고향인 전주의 대단한 지위와 관아, 군대, 원묘 등의 화려한 겉모습에 대한 감탄과 달리, 후2구에서 관아 안에서 늙은 몸을 이끌고 정무를 겨우 돌보는 자신의 모습과 ‘사공(射工)’이 모인 곳으로 당시 처했던 관직생활에 빗대었다. ‘사공’은 군자를 모해하는 소인을 비유한 말이다.

여기서 화자는 벼슬을 그만두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업무를 담당하기 힘들 정도의 신체적 늙음이다. 신체적 늙음은 강호가사에서 관직을 그만두거나 조정에 물러날 때 흔하게 쓰이는 사유이다. 신계영이 파직 당시 74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약 4년 동안의 관직생활을 계속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늙음’은 그가 벼슬을 그만둔 主因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에 화자가 제시하던 또 하나의 이유가 주목된다. 이는 ‘사공’ 즉 화자 주변의 소인들이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시로 볼 때 완산 부윤에서 물러난 이유는 소인배(사공)들의 모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 인용된 한시는 신계영이 치사한 후에 지난 관료생활을 회상하며 지은 <추술구사소견무료(追述舊事消遣無聊)> 중의 한 수이다. 이 작품에는 총 10수

13) 원문은 辛啓榮, 앞의 책, <追述舊事消遣無聊 其九>, 291쪽, 번역문은 윤덕진, 앞의 책, 319쪽을 참고하였다.

14) 辛啓榮, 위의 책, <追述舊事消遣無聊 其九>, 291쪽, “己丑春以戶參拜完山 辛卯春見忤於方伯許積罷歸”.

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전 2수는 화자의 전반생을 총결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8수는 관료생활 중에 중요하다고 여겨진 사건을 중심으로 한수씩 지은 것이다. 인용문은 이 중에 아홉 번째 수이다. 또한 앞에 인용된 <노병중불감무료략기평생사적경개서여옹아(老病中不堪無聊略記平生事跡梗槩書與雄兒)>에도 신계영의 재출사기 중에 유일하게 전주부윤으로 있었던 시절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완산의 사건은 신계영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세 번째 귀거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토대로 다시 <월선현십육경가>의 서사부분으로 되돌아가보면 ‘갑자기 일어난 환해의 풍랑’은 완산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완산 사건이 화자의 귀거래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치사한 후에도 여전히 잊지 못한 상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논의에서는 ‘환해의 풍랑’을 정치적 부침으로 보고, 이에 의거해서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완산의 사건은 신계영의 문학 작품에서만 나타나고,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완산지(完山誌)』 등 역사자료에는 그와 관련된 기록이 없다. 이는 완산 사건이 당시 정계에서 파장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며, 다만 신계영 개인의 차원에서 큰 상처가 되었거나 귀거래의 계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완산 사건은 벼슬생활 중에 겪은 개인적인 불행일 뿐, 당대의 정치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해석할 근거는 희박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계영의 문집에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첫 번째 귀거래를 추정했던 광해조 집정시에만 나타나고 인조반정을 계기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게다가 완산 사건 후에도 계속 관직을 제수받고 일반적 최대 치사연령인 78세에 낙향한다는 점에서 보면 신계영이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듯하다.

그리고 신계영이 치사한 후에 지은 <속귀거래사(續歸去來辭)>와 도연명이 창작된 <귀거래해사(歸去來兮辭)>를 비교해보면 신계영이 현실 세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歸去來兮	돌아가자
請息交以絕游	교제를 그만두고 세속과의 교유도 단절하리라
世與我而相違	세상과 나는 서로 맞지 않으니
復駕言兮焉求	다시 수레를 타고서 무엇을 구하겠는가 ¹⁵⁾

歸去來兮	돌아가자
心已灰於名場	마음은 이미 명성이나 쫓는 곳에 시들해졌으니
嗟老病自知無用	아, 늙고 병들어 쓸모없음을 스스로 아노라
非與世而相違	세상과 어긋나서가 아니라 ¹⁶⁾

<속귀거래사>는 <귀거래혜사>를 모방한 작품이었으나, “세여아이상위(世與我而相違)”와 “비여세이상위(非與世而相違)” 두 문구를 통해 두 작품에서 나타난 귀거래의 성격 차이를 뚜렷이 알 수 있다. <귀거래혜사>에서 도연명은 “세여아이상위”라고 하며 세상과 어울리지 못한 자신이 세상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였다. 즉 현실 세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속귀거래사>에서 신계영은 “비여세이상위”라고 하며 세상과 어울리지 못해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고 역설하고 자기의 귀거래가 도연명과 다르다고 강조하였다.

3. <月先軒十六景歌>에 나타난 ‘興’의 의미

1.1. 詩興: 봄-자연과 인간의 생동

湖天 봄 빗치 斗柄조차 도라 오니
陽坡 ㄹ는 풀이 새 엄이 푸르렀고
沙汀 弱흔 버들 넷 가지 누울 저기

15) 陶淵明, 『陶淵明集』卷五, <歸去來兮辭>.

16) 원문은 辛啓榮, 앞의 책, <續歸去來辭>, 277쪽, 번역문은 윤덕진, 앞의 책, 410쪽을 인용하였다.

江城 느즌 빗발 긴 들호로 건너 오니
清爽흔 더 景概 詩興도 돕거니와
藥圃山田을 하매면 가리로다
이바 아히들아 쇼 죠히 머겨스라
女媧氏 하늘 깎던 늙은 돌히 나마 이서
西窓 밧 咫尺의 亂峯이 되여시니
싸커니 서거니奇怪도 혼더이고
長松 훗선 속의 포기마다 고지 피니
赤城 아적 비에 불근 안개 저젓는 듯
술 츠고 노는 사름 뵈 날 업시 올라가니
爛漫흔 春光이 몇 가지나 상툃던고
金烏山 十二峯이 大野의 둘너시니
느는 듯 머무는 듯 氣像도 奇勝하다
多事흔 靑嵐이 翠黛에 빗겨 이서
모드락 훗드락 態度도 할서이고
蒼然흔 眞面目이 뵈는 듯 숨는 양은
龍眠好手로 水墨屏을 그렸는 듯

겨울이 지나 북두칠성을 따라 다시 돌아온 봄이다. 양지 편의 새싹과 모래톱에 늘어진 버들은 봄을 맞아 생동한 자연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또한 긴 들로 건너온 봄비는 만물을 키우는 원동력으로서 겨울 동안 잠들어 있던 자연과 인간의 활기를 깨운다. 땅이 봄비를 머금어서 촉촉해지며 밭을 갈기 좋은 시절이다. 이때 화자는 아이들에게 소를 잘 먹이고 밭을 금방이면 갈겠다고 하였다. 인간이 자연의 섭리에 맞게 움직이면 일하기가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멀리 바라본 난필봉과 금오산 십이봉은 ‘쌓였거니 서 있거니’한 기이함과 ‘나는 듯 머무는 듯’한 역동성이 드러난다. 게다가 아침비에 젖은 꽃이 송림을 붉게 물들이고 ‘모였다 흩어졌다’한 산기운이 푸른 산에 비껴 있어 한 폭의 그림과 같다. 들쭉날쭉한 산봉우리, 활짝 핀 붉은 꽃, 분주한 산기운 등은 아름다운 춘경을 구현하는 동시에 자연의 조화로우함과 넘치는 생동감을 생생하

게 나타낸다. 봄의 흥취에 폭 빠진 인간은 술을 챙겨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봄 빛을 만끽하고 있다.

여기서 화자가 봄에 즐기는 흥취를 ‘시흥’이라고 부른다. 위에 살펴본 바, 봄이 들자 겨울에 잠잠했던 자연은 다시 생동감을 회복시키며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 이뿐만 아니라 겨울의 추위 때문에 야외활동이 제한된 인간들도 봄같이와 봄놀이를 통해서 오랫동안 억제된 활력을 펼치기 시작한다. 이에 화자의 ‘시흥’은 단순히 아름다운 춘경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겨울 내내 감추다가 봄을 맞아서 터져 나오는 자연과 인간의 생동을 받아 촉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연과 인간의 생동은 역시 동일한 섭리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1.2. 閑興: 여름-자연의 은혜와 인간의 한가로움

殘花는 벌써 디고 白日이 漸漸 기니
 長提 嫩葉이 새 그늘 어릴 저기
 荊扉를 기피 닳고 낮잠을 잠깐 드니
 驕慢한 꿋고리 씨울 줄이 무슨 일고
 기피 7는 길히 草煙이 기쁜 고디
 牧笛 三弄聲이 閑興을 도와 낸다
 鳥棲山 두렷한 峯 半空의 다하시니
 乾坤 元氣를 네 혼자 타 잇고야
 朝暮에 잠긴 안개 바라보니 奇異하다
 몇 번 時雨되야 歲功을 일忘不了

봄꽃이 시들고 한낮이 길어진 여름이 왔다. 나뭇잎이 무성해져서 형성된 그늘은 여름에 인간들에게 상쾌함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때 화자는 닫은 사립문을 기대며 낮잠을 들어 한가로움을 누리려다가 피꼬리의 우는 소리에 깨어난다. 잠이 깬 화자는 멀고 깊은 곳에서 목동의 피리 소리가 들린다고 하였다. 목동의 피리 소리는 태평성대를 의미한 표현이다.¹⁷⁾ 이를 통해 화자가 월선현의

공간 뿐더러 온 세상이 태평성대로 인식된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화자는 치사한 후에 한가롭게 세월을 보내는 모습으로 ‘성세한맹(聖世閑氓)’의 이미지를 표방하였다.

다음은 만물을 생육시키는 빗물이 등장하였다. 화자는 ‘세공(歲功)’을 이루는 ‘시우(時雨)’가 오서산(烏棲山)에 잠긴 안개로 형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오서산이 천지(天地)의 원기(元氣)를 혼자서 타고 있음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천지의 원기는 눈으로 보이지 못하는 우주자연의 섭리인 ‘리(理)’를 가리키는 것이다. 오서산에 담긴 이 ‘원기’는 실질적인 형태인 ‘안개’로 물화(物化)되고, 나아가 때맞춰 내린 ‘시우’로 응축된다. 즉 ‘원기→안개→시우’의 전환 과정에는 인위적인 개입이 전혀 섞여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여름의 흥취가 ‘한홍’으로 정의된다. 여름이 농한기이므로 인간은 노작이 필요 없는 한가로움을 누리기 마련이다. 게다가 무성해진 나무그늘 덕분에 더운 여름에도 상쾌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때 하늘에 내린 빗물은 인간의 ‘한홍’을 더욱 고향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인간이 빗물에 의해서 성장하는 만물을 보면서 다가오는 가을의 풍요로움을 신나게 기대하기 때문이다.

1.3. 田家興味: 가을-자연의 결실과 인간의 풍요로움

梧桐 님히 디고 흰 이슬 서리 되니
西潭 김핀 곳에 秋色이 느껴 있다
千林錦葉이 二月花를 브놀소냐
東녜 두던 밧기 크나 큰 너븐 들히
萬頃黃雲이 혼 빗치 되야 잇다
重陽이 거의로다 니 노리 흥자스라
불근 귀 여물고 누른 둠이 술져시니
술이 니글선정 버디야 업술소냐
田家 興味는 날로 기퍼 가노매라

17) 박연호, 『식영정 원림의 공간 특성과 <성산별곡>』, 『한국문학논총』 40, 한국문학회, 2005, 44쪽.

살여흘 긴 물래에 밤불이 불가시니
 게 잡는 아히들이 그물을 훑터 잇고
 狐頭浦엔 구비에 아적 물이 미리 오니
 돛돈비 欸乃聲이 고기 쫓는 당시로다
 景도 도쿄니와 生理라 괴로오라

다음은 오동나무 잎이 지고 흰 이슬이 서리로 변한 가을이다. 화자는 “서리 맞은 단풍이 이월의 꽃보다 더 붉네”¹⁸⁾라는 시구를 차용하고 봄꽃 못지않은 붉은 단풍을 노래함으로써 가을빛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게다가 ‘풍년(豐年)’을 의미한 ‘황운(黃雲)’, ‘붉은 게’, ‘살진 닭’으로 풍요로운 가을의 세계를 구현하였다. 중앙절이 가까워지자 화자는 고기잡이 놀이를 하고 붉은 게와 살진 닭을 안주로 삼아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풍년의 기쁨을 같이하였다.

또한 화자는 저물녘 여울에 게를 잡는 아이들과 고기를 파는 장사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가을의 풍요로움을 즐기는 백성들의 기쁨을 드러냈다. “밤불(漁火)”, “돛돈 비 欸乃聲(漁歌)”, “고기 쫓는 당시(漁船)” 등은 태평성대를 표상하는 관습적인 코드로서, 백성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생업에만 종사하는 모습을 형상하였다.¹⁹⁾

여기서 화자는 ‘전가흥미’를 가을의 흥취로 삼으면서 이 흥취가 날로 더 깊다고 말하였다. 즉 ‘전가흥미’는 봄과 여름에도 있지만, 가을에 들어서야 이 ‘흥’의 최고조에 이르는 것이다. 이는 가을에 백성들의 풍요로운 삶과 관련되어 있다. 백성들이 안정적이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은 사대부의 치인의 목적이다. 따라서 가을에 풍요롭게 사는 백성들의 모습은 화자의 ‘흥’을 더욱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18) 杜牧, 『杜牧詩集』, <山行>, “遠上寒山石徑斜 白雲生處有人家 停車坐愛楓林晚 霜葉紅於二月花”.

19) 박연호, 「<월선현십육경가>의 공간 특성과 그 의미」, 『개신어문연구』 25, 개신어문학회, 2006, 76쪽.

1.4. 安貧樂道: 겨울-‘歲寒三友’의 군자적 풍모

ㄱ을히 다 다나고 北風이 노피 부니
긴 하늘 너븐 들히 暮雪이 느니더니
이옥고 境落이 各別호 天地 되야
遠近 峰巒은 白玉을 못거 잇고
野堂 江村을 瓊瑤로 꾸며시니
造化 현스호 줄 이제야 더 알 비라
天氣 凜冽호야 氷雪이 싸혀시니
郊園 草木이 다 摧折 호얏거늘
창 밧기 심근 梅花 暗香을 머금엇고
재 우회 서 있는 술 푸른 빗치 依舊호니
본디 삼긴 節이 歲寒호다 變호소나
압 피히 자던 안개 흰 빗줄 ㄱ리오니
竹林의 쫓린 서리 못 미쳐 노갓고야
小爐를 나서 혀고 窓을 닛고 안자 이서
一炷清香의 世念이 그쳐시니
簞瓢 뷔다 호야 興이야 업소나

북풍이 높이 불고 눈이 날리는 겨울이 온다. 화자는 “백옥(白玉)”과 “경요(瓊瑤)” 등 관습적 표현으로 산봉우리와 “야당강촌(野堂江村)”에서 펼쳐진 설경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이어서 화자의 시선은 초목들이 시든 은세계 속에서도 은은한 향을 머금은 매화, 푸른빛이 난 소나무, 서리가 맺혀도 꺾이지 않는 대나무에 끌렸다. 매서운 날에도 본래 갖고 있는 절개를 굽지 않는 ‘세한삼우(歲寒三友)’는 처사로서의 화자가 본받은 대상이 된다.

창문을 닫고 방 안에서 앉아 있는 화자는 향로에 피우는 향기를 따라 세속에 대한 걱정을 끊고 심성 수양에 전념한 모습이 나타났다. 게다가 “단표(簞瓢)”로 조정에 물러난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고 ‘흥’으로 안빈낙도를 지향하였다.

여기서 화자는 ‘세한삼우’를 비롯한 자연물에 대한 관찰을 통해 유가적 도리를 깨달은 흥취를 겨울의 ‘흥’으로 본다. 즉 겨울의 ‘흥’은 바로 ‘안빈낙도(安貧

樂道)’의 ‘낙(樂)’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은 통상적으로 흥취를 잘 보이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화자는 ‘세한삼우’의 절개를 본받아 도학자로서의 전형적인 ‘안빈낙도’의 삶에서 유가적 도리를 깨달은 흥취를 찾았다.

이상에서 화자는 사계의 순서에 맞춰서 자연의 풍경과 인간의 활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 즐기는 네 가지 흥취를 노래하였다. 다음은 이런 흥취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 또한 월선현 주변을 둘러싼 자연과 백성들의 삶을 재요약하는 부분이다.

내 건너 쏜 뽕 아래 거친 막을 두서 집이
老樹柴門에 섰곤 너 빗겨시니
依稀한 우타리 圖畫中 ㄴ틀시고
牛羊이 느려 오니 오늘도 저물거다
石門 노퍽 峯에 夕陽이 불갓는더
우려 네는 기러기 가는 듯 도라 오니
衡陽이 아니로더 回雁峰은 여권런가
斜浦 긴 도리에 오명가명 흐는 行人
어드러 向호노라 뵈얏비 가늌손다
龍山 외로운 덜 언제브터 잇뎃던고
磬子 물근 소리 바람 섰거 지나가니
알와라 늘근 중이 禮佛홀 저기로다

먼저 화자는 고목, 사립문, 울타리가 안개와 밥 짓는 연기에 뒤덮여서 희미하게 보이는 모습을 한 폭의 그림과 같다고 하며, 마을의 평온한 분위기를 북돋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을 표상하였다. 또한 저물녘에 산에서 내려온 소와 양들이 마을의 안정과 풍요를 부각시키고, 계절에 맞게 날아다니는 기러기와 일로 인해 왔다 갔다 하는 행인이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때 멀리서 들린 경자의 맑은 소리는 마을의 고요함을 더하였다. 여기서 화자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을의 공간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백

성들의 모습을 그려냈다. 이는 바로 전란을 수습하고 나라의 기운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던 신계영이 바라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 즉 전란에 시달리는 고통이 없고 평화스럽고 자급자족한 백성들의 삶은 화자에게 여러 흥취를 생기게 하는 토대이다.

1.5. 逸興: 처사적 삶의 자유로움

강호가사의 전형적인 서술구조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사계의 순환에 따라 변화된 자연과 인간의 모습이고 하나는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화자의 삶이다. 앞에 살펴본 네 가지 흥취가 전자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다음으로 고찰할 ‘일흥’은 바로 후자에서 일으키는 것이다.

江橋 춘 남귀 暝色이 가다가니
棲鴉는 느라 들고 프른 모히 멀리 뵈다
閑愁를 못 禁호야 폭람을 기리 불고
脩竹을 지혀 이서 들빛줄 기들오니
숨구즌 널구로미 ㄱ릴 주리 므스 일고
長風이 현스호야 玉宇를 조히 쓰니
一片氷輪이 물곤 빗치 네로왔다
千巖萬壑의 슬크지 불가시니
壇臺 늘근 술이 가지를 헤리로다
疎簾을 고터 짓고 기픈 밤의 안자시니
東峰 도돈 돌이 西嶺의 거디도록
簷檻이 치 빗쳐여 枕席의 쏘야시니
녁시 다 몹으니 夢寐들 이실소나
어와 이 淸景 감시 이실 거시런들
寂寞히 다든 문에 니 門으로 드려오니
私照업다 호미 거즌말 아니로다
茅齋에 빗친 빗치 玉樓라 다룰소나
淸樽을 빗비 열고 큰 잔의 ㄱ둑 부어

竹葉 ㄴ는 술물 돌빛조차 거후로니
 飄然호 逸興이 저기면 놀리로다
 李謫仙 이러호야 돌을 보고 맛치듯다

달이 어두워지자 멀리서 날아드는 까마귀와 푸른 산을 바라본 화자는 “쓸데 없는 걱정(閑愁)”을 금치 못하여 휘파람을 길게 불며 달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 ‘한수(閑愁)’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을 뜻한다. 이는 사대부로서의 화자가 마땅히 나라에 대한 걱정이다. 어느새 바람이 거세게 불어 열구름을 쓸어내고 달이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된다. 그러자 캄캄했던 밤이 늙은 소나무의 가지들 셀 수 있을 만큼 밝아진다. 그리고 화자는 달이 비친 ‘청경(淸景)’ 속에서 뉘까지 맑아졌다고 함으로써 달 덕분에 ‘한수’가 없어지는 후련한 마음을 드러냈다.

달 아래서 화자는 달빛을 따라 술잔을 기울여 이태백(李太白) 못지않은 ‘일홍’을 즐긴다고 하였다. 화자의 ‘일홍’은 “모두 표연한 흥취를 품고 장대한 생각이 날아오르니 푸른 하늘에 올라 밝은 달을 따라하네”²⁰⁾이라는 시구의 ‘일홍’과 유사하다.

여기서 화자는 월선현에서 머물러 있으며 느끼는 흥취를 ‘일홍’이라고 하였다. ‘일홍’은 ‘세속을 벗어난 흥취’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흥취를 즐길 수 있으려면 부귀공명을 얻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얻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다. 또한 이 흥취는 인간이 본성으로 돌아와 느끼는 자유로움에서 나온 것이다. 위에서 화자는 달로 날아갈 듯 한 상상도 역시 이러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본성을 따른 결과로 본다.

20) 李白, 『李白詩集』, <宣州謝餞別校書叔雲>, “俱懷逸興壯思飛 欲上青天攬明月”.

4. 달과 ‘月先軒’의 의미

<월선헌십육경가>를 살펴보면 화자는 달에 유독 관심이 많아 보인다. 달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과정, 달이 비친 밝은 세상 등의 내용이 작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월선헌’이라는 당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희가 ‘리일분수(理一分殊)’의 이론을 설명하는 데 사용한 ‘월영만천(月映萬川)’이 주목된다.

『理性命』章에서 어째서 『分』자를 사용한 것인가? (주희가) 말하기를 (하나를) 나누어 조각이 되는 것이 아니니, 다만 달이 온 시내를 비추는 것과 비슷하다.
(중략)

문기를 『理性命』章의 주석에서 근본부터 말초는 하나의 理의 결실이다. 만물은 그것(理)으로써 형체를 갖게 되니, 따라서 만물은 각각 하나의 태극을 갖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태극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인가? (주희가) 말하기를 근본은 다만 하나의 태극인데, 만물이 각자 (태극을) 받아 또 스스로 각자 하나의 태극을 온전히 갖추게 된다. 달이 하늘에 있을 때는 단지 하나일 뿐이지만 강호에 흠어져 존재하는 것과 같다. 즉 어디서나 보인다고 해서 달이 나누어져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²¹⁾

인용문에서 주희는 태극 즉 ‘리’는 만물의 本源이라고 하며, 만물은 천차만별(千差萬別)이지만 그들에 부여되는 ‘리’는 똑같다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리’와 ‘만물(萬物)’의 관계를 ‘월(月)’이 ‘만천(萬川)’에 비유하였다. 이는 하나의 달이 온 시내를 비추고, 온 시내가 하나의 달에 비추이는 자연적 현상을 기반으로 두며, 만물과 그것에 내재되어 있는 ‘리’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월영만천’에서 달은 온 시내에 비해 유일성 또는 근원성을 갖추기 때문에 유가적 ‘리’의

21) 朱熹, 『朱子語錄』 卷94, 『理性命』, “『理性命』章何以下『分』字? 曰 不是割成片去 只如月映萬川相似 (중략) 問 『理性命』章注云 自其本而末 則一理之實 而萬物之以爲體 故萬物各有一太極 如此 則是太極有分裂乎 曰 本只是一太極 而萬物各有稟受 又自各全具一太極爾 如月在天 只一而已 及散在江湖 則隨處而見 不可謂月已分也”.

상징적 경물로 보았다.

그리고 유교 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월영만천’과 비슷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영가정도가(永嘉証道歌)>에서 선종 헌각(禪宗 玄覺)은 “하나의 달이 온 시내를 비추고, 온 시내가 하나의 달에 비추인다”²²⁾라고 함으로써, 중생을 두루 살피는 ‘리’인 불법(佛法)을 달로 상징하였다. 이에 대해서 주희는 “씩씩도 이 도리를 엿보았다”²³⁾라고 하였다. 물론 유교와 불교는 주장하는 ‘리’가 다르지만, ‘리일분수’의 철학 이론에 대한 인식이 일치한다.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불교 우주론을 수용해서 만들어진 철학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사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불교에서 달이 불법을 상징하는 것처럼 성리학에서도 달이 이법(理法)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월선헌십육경가>에 나타난 달에도 이와 같은 의미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疎簾을 고터 짓고 기쁜 밤의 안자시니
東峰 도든 돌이 西嶺의 거디도록
簷楹이 치 빗쳐여 枕席의 쏘아시니
녁시 다 몹으니 夢寐들 이실소나
어와 이 淸景 감시 이실 거시런들
寂寞히 다든 문에 너 門으로 드러오니
私照업다 호미 거즌말 아니로다

위에서 먼저 동산에서 서산까지의 달의 움직임을 따라 월선헌 곳곳에 달빛이 가득 비쳐 있는 ‘청경’이 그려진다. 이를 통해서 화자는 달이 ‘사조(私照)’가 없다는 말을 검증하였다. ‘사조’가 없다는 말은 달이 한 곳 또는 몇 곳에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빠짐없이 비춘다는 뜻이다. 이는 ‘월영만천’에서 달이 온 시내를 비추는 뜻과 같다. 따라서 월선헌을 비추는 달은 ‘월영만천’ 중

22) 禪宗玄覺, 『大藏經·諸宗部』, <永嘉証道歌>, “一月普現一切水 一切水月一月攝”.

23) 朱熹, 『朱子語錄』卷18, “這是那釋氏也窺見得這些道理”.

에 ‘월’과 같은 것이다. ‘월영만천’에서 유가적 ‘리’를 상징하는 달의 의미도 <월선현십육경가>에 나타난 달에 적용된다.

이를 근거로 하면 바람이 달을 가린 구름을 쓸어내는 현상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숨구존 널구로미 ㄹ릴 주리 므스 일고
長風이 현스ㅎ야 玉宇를 조히 쓰니
一片氷輪이 물곤 빗치 네로왔다
千巖萬壑의 슬크지 불가시니
壇臺 늘근 술이 가지로 헤리로다

장풍은 달을 가린 구름을 쓸어내어 달을 드러낸다. ‘월영만천’에서 살펴본 듯이 달이 유가적 ‘리’를 상징한다면 달이 비친 밝은 세상은 바로 ‘리’가 여실히 구현된 태평성대를 의미한다. 여기서 달, 구름, 바람은 구체적인 인물이나 정치 세력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셋의 상호적 작용을 통해 나라가 성세(盛世)와 난세(亂世)가 교체되는 역사적 법칙에 대한 관념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여기서 역사적 법칙이라는 것은 바로 주희의 기수론(氣數論)에 기반을 둔 성리학의 운명론적·순환론적 세계관이다. 성리학의 사유체계에서 난세는 태고 이후 기가 점차 약박해진 결과로 이해되고, 성세는 난세의 현실일지라도 유가의 이념적 질서를 지킨다면 다시 기대할 수 있는 중흥으로 간주된다.²⁴⁾ 따라서 위에 구름이 달을 가리는 상황은 ‘리’에서 어긋난 ‘난세’를 의미하고, 달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상황은 ‘리’에 따른 바람직한 ‘성세’를 의미한다. 이때 구름은 역사 발전의 과정에 성세를 난세로 바꾸는 부정적인 추동력이라고 한다면 바람은 난세를 성세로 바꾸는 긍정적인 추동력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월선’이라는 이름은 신계영 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시기에 살

24) 이승준, 『壬辰倭亂 前後 국문시가의 太古 모티프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88-189쪽.

있던 세종의 현손인 이정(李霆)도 이를 정자의 이름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월선정기(月先亭記)」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자의 경치가 이처럼 빼어난데 굳이 ‘월선’이라 명명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아, 나는 알겠소. 대저 달이란 하나의 값을 매길 수 없는 물건인데, 산은 반드시 달을 얻어야 높아지고 물은 반드시 달을 얻어야 맑아지고 들판은 반드시 달을 얻어야 넓어집니다. 달이 정자보다 앞선다고 한 말에서 지대가 높음을 상상할 수 있으며, 지대가 이미 높고 또 먼저 달을 얻는다면 정자의 빼어남이 더할 나위 없다 하겠습니까. 고기잡이와 사냥을 그대는 진실로 즐기겠지만 반드시 기운이 움직이고 흥이 따라 일어나며 흥이 다하면 정신이 지치게 마련이니, 어찌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오고 시기하는 마음이 없는 달만 하겠습니까. 매화와 대를 그대는 진실로 좋아하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시들 때가 있어 영구히 생존할 수 없고 보면, 어찌 천지와 한서가 다하도록 끝내 소멸하지 않는 달만 하겠습니까. 정자의 이름은 참으로 잘 지었다 하겠습니까.”²⁵⁾

위 글에서 먼저 주목된 것은 달과 산, 물, 들판 등의 관계이다. 이정구는 산이 반드시 달을 얻어야 높아지고, 물이 반드시 달을 얻어야 맑아지고 들판이 반드시 달을 얻어야 넓어진다고 말하였다. 산, 물, 들판의 실체가 밤의 어두움에 가리다가 떠오른 달 때문에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즉 달은 산, 물, 들판을 비롯한 사물의 실체를 드러나게 해주는 힘이 된다. 따라서 ‘월선’은 달이 개별 사물보다는 그것의 실체를 드러나게 해주는 것 즉 달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이정구는 또한 두 가지 면에서 달의 초월성을 강조하였다. 하나는 욕망이 없는 달의 순수성이다. 이는 고기잡이와 사냥 등 때에 따라 변하는 감

25) 李廷龜, 『月沙集』제3권, 「月先亭記」, “余應之曰 亭若是其勝 而必以月先名者 何取焉 噫 余知之矣 夫月 一無價物也 而山必得月而高 水必得月而清 野必得月而迥 月先於亭 則地之高可想 地既高而又先得月 則亭之勝 蔑以加矣 漁與獵 子固樂之 然必氣動而興隨 興盡而神疲 夫豈若月之不邀自至 無心可猜者乎 梅與竹 子固愛矣 然必榮悴有時 不能長存 則夫豈若月之窮天地貫寒暑而卒莫消長也哉 亭之名 得矣”.

정의 단속성(斷續性)과 때만 되면 저절로 떠오른 달의 지속성을 비교해서 얻은 결과이다. 또한 하나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든 매화와 대나무에 비해 천지와 더불어 존재하는 달의 항구성이다.

이상에서 제시된 달의 역할(사물의 실체를 드러나게 해줌)과 성격(순수성·항구성)은 앞에 ‘월영만천’에서 달이 상징하는 유가적 ‘리’의 본질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주희는 “하늘과 땅 사이에는 오직 ‘리’ 하나만 있을 뿐이니 하늘은 그것을 얻어서 하늘이 되었고, 땅은 그것을 얻어서 땅이 되었다”²⁶⁾라고 하였다. 이는 성리학에서 ‘리’가 만물을 생산하는 근원이라는 이론적 근거이다. 따라서 ‘월선’이라는 것은 달로 상징되는 유가의 ‘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정의 월선정은 그가 노년에 공주로 내려와서 지은 정자이다. 공주와 월선현이 있는 예산은 모두 충남지역에 속하고, 이정(1541-1626)과 신계영(1577-1669)도 약 30년밖에 차이 나지 않는 인물들이었다. 그러므로 유가적 ‘리’를 상징하는 달의 문화적 의미와 ‘리’를 지향하는 ‘월선’의 의미는 성리학적 이법이 제대로 구현되는 현실에 대한 갈망이라 할 수 있다.

5. 결론

본고는 <월선현십육경가>의 서사에서 신계영이 ‘환해풍랑’으로 가리키는 사건을 추정하고, 작품에서 나타난 다섯 가지의 ‘흥’과 ‘월선현’의 의미를 살펴 보았다.

신계영의 벼슬살이와 이에 관련 문학작품을 검토한 결과는 서사에서 드러난 ‘환해풍랑’은 파직을 당했던 완산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6) 『朱子全書』 卷60, 『讀大紀』, “天地之間 理一而已矣 天得之而爲天 地得之而爲地 凡生於天地間者 又各得之而爲性 張之爲三綱 紀之爲五常 此皆一理之流行 無所適而不在者也”.

이 사건이 신계영의 문학작품에서만 나타나고, 역사자료에는 그와 관련된 기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완산 사건은 개인적 차원에서만 겪은 큰 불행일 뿐, 신계영이 정치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해석할 근거가 되기가 어렵다. 또한 신계영이 지은 <속귀거래사>와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비교해보면 신계영이 현실 세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월선헌십육경가>에서 계절별로 나타난 ‘홍’에 부여되는 명칭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봄의 ‘시홍’은 자연과 인간의 생동으로 촉발된 홍취로, 여름의 ‘한홍’은 자연의 은혜와 인간의 한가로움으로 즐기는 홍취로, 가을의 ‘전가홍미’는 자연의 결실과 인간의 풍요로 누리는 홍취로, 겨울의 ‘안빈낙도’는 ‘세한삼우’로 일어나는 도학자의 홍취로, ‘일홍’은 처사적 삶의 자유로움으로 느끼는 홍취로 구별되었다. 이 중에서 ‘시홍’, ‘한홍’, ‘전가홍미’, ‘안빈낙도’는 사계의 순환에 따라 변화된 자연의 풍경과 백성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일홍’은 화자 자신의 삶에 초점을 두고 일으키는 홍취이다.

마지막은 ‘월영만천’에서 달이 유가적 ‘리’를 상징하는 의미를 확보하고, 이를 작품에서 나타난 달에 적용하였다. 작품에서 구름이 달을 가리는 현상은 ‘리’를 어긋난 ‘난세’를 의미하고, 달이 세상을 비추는 현상은 ‘리’에 따른 ‘정세’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 바람이 달을 가린 구름을 쓸어내는 현상은 나라가 정세와 난세가 교체되는 역사적 법칙에 대한 관념적 표현으로 재조명한 것이다. 그리고 ‘월선’이라는 당호는 그의 사전적 의미보다 유가의 ‘리’를 표상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달과 ‘월선’의 의미는 성리학적 이법이 제대로 구현되는 현실에 대한 갈망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大藏經·諸宗部』

『仁祖實錄』卷37.

朱熹, 『朱子全書』卷60.

, 『朱子語錄』卷18·94.

杜牧, 『杜牧詩集』, 『全唐詩』卷524.

李白, 『李白詩集』, 『全唐詩』卷177.

陶淵明, 『陶淵明集』, 『四庫全書』集部.

辛啓榮, 『仙石遺稿』, 한국역대문집총서 No.1739.

李廷龜, 『月沙集』, 한국문집총간 60-70집.

윤덕진, 『선석 신계영 연구』, 국학자료원, 2002, 1-517쪽.

2. 논문

김명준, 「<월선헌십육경가>에 나타난 의식 지향」,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0.

남정희, 「<월선헌십육경가>의 강호 공간과 시적 형상화의 의미」, 『어문연구』 3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UCI : G704-000452.2009.37.2.001)

박연호, 「식영정 원림의 공간 특성과 <성산별곡>」, 『한국문학논총』 40, 한국문학회, 2005.

(UCI : G704-000592.2005.40.012)

_____, 「<월선헌십육경가>의 공간 특성과 그 의미」, 『개신어문연구』 25, 개신어문학회, 2006.

송종관, 「가사와 시조의 상보적 관계 연구-<전원사시가>와 <월선헌십육경가>의 경우-」, 『어문학』 66, 한국어문학회, 1999.

이승준, 『壬辰倭亂 前後 국문시가의 太古 모티프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허왕욱, 『일상적 경험의 형상화가 지니는 시가사적 의미-신계영의 <월선현십육경가>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33, 한국시가학회, 2012.
(UCI : G704-000454.2012.33..006)

| Abstract |

**A discussion about the meaning of ‘enjoyment’
and ‘Wolseonheon(月先軒)’ in
<Wolseonheonsipyukgyeoga(月先軒十六景歌)>**

Zhu, Jin-ni

Chungbuk Univ. Ph.D. Candidate

This paper aims to delve the symbolic world constructed by <Wolseonheonsipyukgyeoga> by discussing the significance of the Wanshan(完山) incident of Shin Gyeyeong(辛啓榮) and exploring the connotation of the six kinds of enjoyment and the significance of Wolseonheon.

Firstly, based on an insight into Shin Gyeyeong’s official life and his relevant literary works, it can be implied that the expression ‘officialdom’ in <Wolseonheonsipyukgyeoga> refers to the Wanshan incident that he was removed from his position. This only represents the individual misfortune he experienced rather than an evidence to suggest Shin Gye yeong’s total negation of the political reality.

Secondly, the enjoyment of hermit is distinguished from the other five kinds of enjoyment, namely, enjoyment of poetry in spring, enjoyment of leisure in summer, enjoyment of fields, being content with simple and delightful in the Taoism. The latter five enjoyable experiences all focus on the natural circling of seasons and the life

of common people. In contrast, the enjoyment of hermit is based on the life of the poet himself and inspired by the freedom of the Hermit life.

Lastly, the moon in the expression ‘the moonlight pouring on the ten thousand streams’, a representation of reason and sense, can be helpful to interpret the second half of <Wolseonheonsipyukgyeoga> which takes the moon as the center. Furthermore, Wolseon can be understood as taking the Confucianism as the basis of life. Therefore ‘Wolseon’ means desire of reality that Neo-confucianism’s order was realized.

Key words : Shin Gyeyeong, <Wolseonheonsipyukgyeoga>, Wanshan incident, enjoyment, meaning of Wolseonheon.